

런던 서점에서 처음 놀란 건 전기물과 역사물 코너다. 각층을 거의 차지한 서가마다 숲한 세월과 인물이 생생히 살아 도열하고 있다. 유난히 자국의 전통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영국인에게 전기물과 역사서 읽기는 자연스러운 독서 트렌드다. 베스트셀러에도 영국사를 다룬 책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파고 높아진 역사소설의 물결

최근엔, 사전편찬자며 20세기 신비평의 선구자로 영국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새뮤얼 존슨을 다룬 소설 《퀴니에 따르면》(According to Queeney)이 온통 세인의 주목을 받는다. 존슨은 생애 마지막 20년을 오랜 친구이자 부유한 양조업자인 헨리 스투일의 집 스트리트햄에서 지냈는데, 이 책에는 스투일 부인과 딸 퀴니와의 교우를 통해 존슨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드높은 명성의 인물과, 작가의 아름다운 문장이 만나 엮이는 고급한 상상력은 이 작품에 각별한 매력을 더한다. 출간되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BBC 2 TV에선 주말 한시간을 베릴과 이 작품에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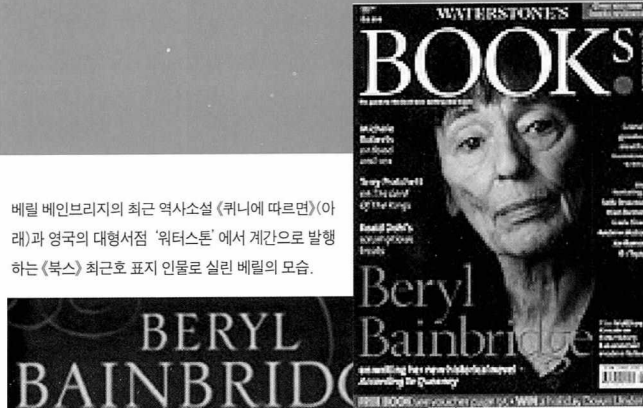
이 책을 쓴 베릴 베인브리지(68)는 부커상 수상작가로서의 탄탄한 문학적 역량을 최근 10여년간 역사에 바치고 있다. 남극탐험을 이끈 스콧 경의 비극적 스토리를 담은 《소년들의 생일》(The Birthday Boys),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을 다룬 《결국은 혼자》(Every Man For Himself), 참혹했던 크리미어 전쟁을 포착한 《명의 조지》(Master Georgie), 그리고 이번 소설까지 그의 역사탐구는 이어진다.

베릴의 이번 작품을 계기로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듯하다. 이제 ‘역사’는 문학작품의 중요한 테마다. 내로라하는 당대 작가들은 과거 시간을 소설 무대에 장치한다. 하지만 역사를 소설에 끌어들이기엔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이 만만찮다. 상상력만으로 채우기엔 확인할 사실조사와 공부야 많다. 문학의 황금시절까지만 해도 탐정소설, 애정소설, SF 등에 비해 ‘역사소설’이란 장르를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 전환점은 1970년대 J. G. 파렐의 작품으로 언급된다. 그의 소설 《시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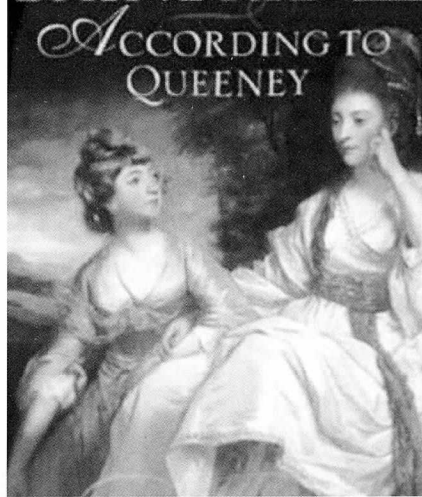
상상력의 대륙 ‘역사소설’로 귀환하는 영국 문학계

불확정의 시대에 과거에서 가치와 의미 발견해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베릴 베인브리지의 최근 역사소설 《퀴니에 따르면》(아래)과 영국의 대형서점 ‘워터스톤’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북스》 최근호 표지 인물로 실린 베릴의 모습.



(Troubles)은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생생한 증언이다. 이제까지 영국의 거대한 그늘 속에 가려 있던 아일랜드 역사가 이 책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은 부커상 결선에 오른 첫 역사소설이 됐고, 파렐은 다음 작품 《크리쉬나푸르 포위작전》(The Siege Of Krishnapur)으로 부커상을 안았다.

역사소설의 물결은 1990년대 이르러 파고 접이 높아진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우키요에》(浮世繪, 에도 시대 풍속화)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에서 예술가의 눈을 통해 전쟁을 향해 미끄러져가는 일본을 보여준다. 이언 맥기언은 《검은 개》(Black Dogs)를 통해 프랑스 식민지령에서 여전히 역사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과거를 들춰내 보인다. 최근까지도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마틴 에이미스의 《시간의 화살》(Time’s Arrow)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의 악령을 되살려낸다.

역사를 잊지 않는 소설의 역할

왜 역사소설을 읽는가. 19세기 초를 상정한 《영국인 승객》(English Passengers)으로 지난해 화이트브레드상을 받은 매튜 닐은 몇가지 요인을 든다. 우선 20세기는 불확정의 시대였다는 것. 불안의 연속에서 잠깐의 휴식은 과거 시간 속에서 찾는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은 역사의 반복을 확인해준다. 소설 뿐 아니라 TV 다큐멘터리, 할리우드 영화에 서조차 역사의 재발견을 시도한다.

역사의 서사는 현재의 외연이다. 과거 시간은 정확히 현재에 공명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뒤돌아서면 바로 보인다.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영국인들이 아직까지 세계의 중심에서 있는 건 역사를 잊지 않은 탓일 게다. 그 역할의 중심에 ‘소설’이 있다. 개인사적이며 관념적인 소설이 이제 지겨운 것은 눈앞에서 역사의 반향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지나온 세월은 아직도 팽팽한 시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문학은 너무 한가한 게 아닐까. ■